

## 로타리재단 창립 2세기의 첫해를 맞이하며



로타리재단 이사 **윤영석**  
2009-10 총재, 서울회현RC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3650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 깊은 애정과 믿음으로 로타리재단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기부와 관심, 열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년은 로타리재단이 창립 2세기의 첫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로타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Doing Good in the World)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꾸준한 기부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로타리재단은 소아마비 박멸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거대한 재단이 되어 로타리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타리재단은 이 역사적인 한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연차기금, 인다우먼트 기금, 폴리오플러스 기금 전반에 걸쳐 ‘미화 3억 6천만 달러’ 라는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5천만 달러와 연차기금 1억 3,500만 달러 모금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로타리가 집중해온 질병 퇴치, 빈곤 완화, 깨끗한 식수 공급, 평화 증진, 문해력 향상, 경제 발전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은 2025년까지 20억 2,500만 달러의 인다우먼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2025 by2025’ 캠페인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세기의 출발과 함께 로타리재단의 영구적인 발전과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다우먼트 기금(영구기금) 기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의 영구적인 가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자원이 되어 로타리의 모든 봉사 사업을 도울 수 있는 기초 자원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3650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 세계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장학문화재단 발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이사장 **고성대**  
2012-13 총재, 한양RC

존경하는 RI3650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부터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제19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을 신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실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장학문화재단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은 1973년에 발족하여 우리 한국 로타리안들의 기부 성금으로 튼튼한 기초를 쌓아 45년 동안 성장해왔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총 5만 5천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천 88억 원을 지급해 온 장학 실적은 한국로타리안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예상치 못한 재단 사무직원들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기금 손실과 직원들의 구속 등 있을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져 모든 로타리안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장학금을 기부해오던 로타리안들은 이 사건 이후로 재단에 대한 불신이 커져 기부의 열정이 시들었고, 그 여파로 오늘의 장학문화재단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직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기부는 날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상한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되나, 저희 재단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의 유일한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2005년 6월에 장학재단의 소유가 된 서울 용산구 갈월동 5-8 대지 2,985㎡에 로타리회관 건물을 신축 후 동 임대료를 장학금 지급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동 건물을 건축해 얻게 되는 임대 수입은 현재보다 좋은 조건이 될 것이며, 미래 부동산 가치 상승은 물론 로타리안들의 회관 활용가치도 높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로타리회관 건물은 우리들의 또다른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전국 로타리안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시금 우리 로타리안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고학하는 국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충분히 지급하는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우리 로타리안들의 새로운 도전과 손길을 기원합니다.